

삼도봉 행복생활권 더 강해진다

무주·김천·영동 상생발전 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18일 김천시 로제니아 호텔 세미나실에서 김천시와 영동군 등 세 지역 관련 공무원들과 지역발전위원회 조상명 지역생활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도봉 생활권 발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그간 3개 시·군의 논의기구 역할을 수행하던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발전협의체를 삼도봉 생활권 협의체(시장·군수, 공무원, 민간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로 기구를

변경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와 박보생 김천시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발전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삼도봉 생활권 협의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발전을 위해 앞으로 삼도봉 생활권 협의회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자는 뜻을 모았다.

황 군수는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그동안 협업행정의 기초를 다졌다면 오늘

부터는 발전협약을 기반으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삼도봉 정상에서 쌓은 30여년의 믿음이 광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탄실한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무주와 김천시, 영동군의 인연은 1989년 무주군의 제안으로 시작된 삼도봉 만남의 날을 계기로 맺어진 것으로, 2009년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삼도봉 권역의 발전전담 수립,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며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무주·영동 경계지역 오지마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성과를 낳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은 2015년과 2016년 ‘운영 우수생활권 표창(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 이후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운영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생활권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김천시·영동군과 삼도봉 생활권 발전협약을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안군, 규제개혁 우수제안 11건 선정

진안군은 지난 18일 규제개혁 제안심사를 통해 11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지난 17일 군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공무원 규제개혁 제안공모에 접수된 개선과제 65건

과 규제개혁 사례 4건 등 총 69건 중 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서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친 24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다.

우수제안 심사결과 수상자는 모두

11명(금상 1, 은상 1, 동상 1, 입선 8)으로 ▲금상 ‘비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은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동상 ‘식품제조·가공시설 자가 품질 검사 수수료 완화’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입선으로 선정된 제안은 규제개혁 개선과제 ▲산단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 ▲지역특구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명문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유예기준 완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품목에 대한 영세율화, ▲진안군 농기계임대사업 조례 개정 5건과 규제개혁 우수사례, ▲숙박시설 유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안홍삼 품질인증제 확대로 지역브랜드 강화, ▲팜투어로 홍삼기업 MOU체결, 아프리카 시장 개척 3건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봉동 광신 프로그레스, 금연아파트 1호 지정

완주군 봉동읍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가 완주군에서 최초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단지 내 입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봉동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를 금연아파트 1호를 지정했다.

봉동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는 총 171세대 중 115세대인 67%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찬성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으로 3개월여 동안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2017년 2월22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 이상이 찬성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 연기없는 으뜸도시 완주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계남주민자치위, 진해 자은동 직거래 장터 ‘호응’

6000여만원 소득 성과

장수군 계남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체결연지 경남 진해구 자은동 주민센터광장 일원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도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자은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수군의회 오재만

의원, 박현식 계남면장, 박판서 계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장수호 농촌지도자회장, 양종대 산악회장, 양영희 장계농협계남지점장 등 관내 농협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됐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행사에는 사과, 오미자, 인삼, 한우 등 30여개 품목을 판매해 전량 소비되는 등 6,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판서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날 열린 직거래장터는 장수군 대표 농축산물 판매 뿐 아니라 장수의 넉넉한 인심과 정(情)을 나누는 도농교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진안군은 지난 18일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단순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들에게 대한 변호판영치 및 금융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자진납부기간 안내를 위한 플래카드를 읍·면계시대에 게시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11월초 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지서 및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대상자에 대한 변호판영치 예고문을 우편 발송으로 안내하였다.

현재 진안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7억7,000만원으로 각종 사용·임대료

들이 2억6,9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5억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변호판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징수 전용 차량 운행과 체납차량 변호판영치차량을 상시 운용하여 101건, 4,300만원을 영치 및 예고하여 45건, 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일제정리기간 중 주·야간 활동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납부의를 고취하고 이월체납액의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중국천마, 한국천마 고장 무주 오다

산동성 식용균연구소 강봉정 소장 초청강연

무주군이 천마재배 기술 교육 지난 16일~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중국 산동성 해양 장정 식용균연구소 강봉정 소장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천마사업단(사업단장 유찬주)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날 강연은 무주군 천마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강봉정 소장은 천마생장에 필요한 조건부터 천마 퇴화의 증상과 원인, 예방조치와 중국천마재배기술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천마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배방법에 대해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농가들은 “전문 연구소가 있을 만큼 중국도 천마를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 천마를 재배하는데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오늘 강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중국에서도 탐내는 무주천마의 명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정 소장은 산동성 해양시 과학기술 발전상, 중국 전역 천마 회의에서 1등상을 수상 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국천마 재배의 권위자로, 중국에서 가장 귀하게 거래되는 오천마(烏天麻)자마 및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토양/원목 소득약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 장정 식용균연구소는 무주천마사업단과 2013년, 그리고 2016년 2회에 걸쳐 MOU를 체결하고 천마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 ‘성황’

장수문화원(원장 권승근)은 지난 17일 문화 예술인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제9회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장계 풍물단의 신명난 공연을 시작으로 장수국악 동호회의 판소리 흥부가중 ‘바타는 대목’, 우도첼버오케스트라 맘마미아, 핑크팬더, 장수는 개시남송, 부채춤, 해금공연,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또, 부대행사로 장수군의 문화예술

동호회원들이 장수문화원 문화교실 활동을 통해 만든 도자기 공예, 가죽 공예 등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다.

권승근 원장은 “행사를 거듭할수록 우리군에 다양한 재주꾼들이 분포해 있음을 알게 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자본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축사를 통해 “군정목표인 문화예술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 펼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지난 18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무주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에 재단은 국립태권도박물관장(서봉준)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함께하며 김치를 버무리고 맛있는 김치를 담궈 무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성을 다했다.

서봉준 관장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북리소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14명 위촉

완주군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을 위촉했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직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전년 대비 출연금 예산 증액 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처음 열렸다.

군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는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진장지역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성료’

제14회 무진장(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가 지난 18일 진안군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무진장지역 건설공무원 200여명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배구, 농놀이, 피구, 이어달리기 등 체육행사와 장기자랑을 통해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름다운 도시 무진장 건설을 위해 주민 의견청취로 현장에 적극 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건설시공에 앞장서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는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항로 군수는 “진무장 지역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지역개발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건설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군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는 지난 2000년부터 진무장지역 순회로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췌, 청소년 집중 선도 나서

완주경찰서(서장 이승길)는 수능 후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집중 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들이 수능 시험 후 심리적 해방감 및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우석대 앞 식당가와 둔산리 유홍지역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담배, 주류 판매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예방·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학부모로서 안심이 된다”고 했다.

이승길 서장은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해서는 비행예방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사랑봉사회, 쌀 1톤 기탁

진안사랑봉사회(회장 안정기)는 지난 1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1톤을 백미 1000kg(2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기탁했다.

진안사랑봉사회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낡은 도배와 장판 교체 및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불 전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무료관람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등 선정을 이어왔다.

이번 백미 전달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먹거리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정기 회장은 “늘 하였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